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누가복음(Gospel of Luke) 21:25-36 데살로니가전서 (1Thessalonians) 3:9-13

Dec 2, 2018 MSPC

먼 오지에 있는 군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군대는 군대인데 그야 말로 군기가 빠진 부대였습니다. 훈련도 안하고, 보초도 제대로 안스고, 근무시간에는 노는 일이 허다한 부대였습니다. 하루는 군대의 사령관이 이 부대를 방문한 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산골짜기에 위치한 부대라 사령관이 한번도 온 적이 없는 부대였습니다. 병사들은 그냥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미심쩍게 사령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사령관 방문소식을 전해 준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 사령관 행렬이 올 때는 수 많은 차량 이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어요. 그리고 보통 때와는 다른 규모의 불빛을 보게 될 것어요. 그러니 사령관 방문을 알아차리지 못할 이유가 없소./ 군인들들은 평소와 달리 청소도 열심히 하고 무기도 점검합니다. 보초도 셉니다. 그러면서 밖을 살펴 봅니다. 그러나 밖을 보아도 아직 그 커다란 소리도 들리지 않고, 평소와 다른 불빛도 없었습니다. 몇날을 기다리다 병사들은 원래 하던 대로 근무시간에 쿵쿵 음악을 틀어 놓고, 멋진 영화를 보며,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씩 밖을 보았지만 사령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꼬불꼬불 한 산길을 따라 사령관의 행렬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자신들이 틀어 놓 카다라고 현란한 음악에 빠져, 그 차량 행렬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번쩍 거리는 차량행렬의 빛도 현란한 영화의 스크린 빛에 가리에 보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둔해져 사령관이 온다는 사실

조차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흐려져 하늘이 빛이 환해져도 구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땅이 요동하나 그것도 느낄 수 없이 무뎠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령관은 코너를 돌면 됩니다.

주님은 사령관 처럼 이미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 빛도 보지 못하는 군인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2천년 전에는 조용하게 세상속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초라한 마굿간에서 태어나, 보자기에 싸여 말 먹이통인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 하시며,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주님은 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 second-coming 이라 부릅니다.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은 사령관 처럼 이미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의 4 주일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Advent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 부릅니다. Advent 라는 말은 “오심” 즉 영어로 “coming”이란 말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우리는 2천년 베들레헴에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가다듬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겨울철의 사순절(Winter Lent)” 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준비의 중요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전기세를 내야할 때가 언제인지, 보험을 낼 때가 언제인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언제 쫓 은퇴하고 은퇴후를 어떻게 준비할 까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서 노년의 삶의 풍성해도, 길면 90 살까지 또는 100 살까지 살아갑니다. 영원의 준비가 없으면, 우리 모든 준비는 그저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만을 위한 것입니다. 100 년과 영원(eternity)은 한컵의 물과 끝없는 바다물 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나고 우리의 육체가 시들어도 우리에게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개인적 종말 말고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본문 바로 앞제가 바로 A.D 70 년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 절 부터는 미래의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가 약 A.D 30 년 경입니다. 실제로 그후 약 40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이 완성된지 불과 7 년 후 A.D. 70 년에 로마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직접 보고, 그 역사를 자신의 책 '유대전쟁사'를 통해 남겼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 110 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9 만 7 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행성 planet 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창립자며 CEO 인 Elon Musk 는 화성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예비 Rocket 도 성공적으로 궤도에 보냈습니다. 2022 년에는 짐을 화성에 보내고, 2024 년에는 100 명 정도의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인터뷰를 보니 일란 머스크 자신도 화성에 함께 갈 확률이 70 퍼센트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이 화성탐사에 자원했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우주여행에 자원할까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 대부분은 지구는 곧 멸망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학자들, 부유한 탐험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점점 지구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징조는 성경에서 말씀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싹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이미 세계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런 일, 즉 이런 징조는 앞에 10 절 부터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말세에 전쟁이 일어난 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즉 내전이 일어나 같은 민족끼리 살상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커다란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300 년 동안 유럽에서 만 약 300 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진 역시 20 세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20 세기 후반기에 절반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곳곳에 홍수와 지진의 소식이 계속됩니다. 지진의 빈도도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기근 재난 엄청난 핍박은 세상 끝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 끝이 시작이란 것입니다.. 마 24:14 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And this good new] of the kingdom will be proclaimed throughout th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런 상황을 이방인의 때가 찬다 The times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동시에 이방인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져 때가 차면, 그 때가 이제 세상의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짜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 절에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5 “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and on the earth distress among nations confused by the roaring of the sea and the waves. 26 People will faint from fear and foreboding of what is coming upon the world, for the powers of the heavens will be shaken 하늘에 세상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고 어마 어마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같은 소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이 분명해 지니 사람들의 무서워 기절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대강절 첫주에 주어진 누가복음 본문은 암울하게 보입니다. 멸망, 두려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말씀의 초점은 멸망이 아닙니다. 말씀의 초점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시 찾아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이때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시간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서움과 기절의 시간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군대 사령관인 아버지가 군대를 대려와 강패들을 혼내주고 잡아가둡니다. 강패들에게는 두려움과 기절의 시간입니다. 사령관 아들, 딸에게는 아버지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오시는 때는, 사령관

아버지처럼, 천군천사를 이끌고 우리를 구하러 오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고 계십니다. 27 절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7 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28 Now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and up and raise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때, 즉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우주적 징조가 나타날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stand up and raise your heads,고 말씀합니다. 반갑게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은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를 들고 반갑게 맞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4 “Be on guard so that your hearts are not weighed down with dissipation and drunkenness and the worries of this life, and that day does not catch you unexpectedly,고 말씀합니다. 조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세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며 합니다.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가 영적으로 우리를 둔하게 만들게 되니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방탕함은 자기 멋대로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술취함’은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꼭 진짜 술을 먹고 취하는 것만 술취하는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미해지면 그것도 술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탕'과 '술취함'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만 말세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속에 영적 둔함이 아니라, 성령의 등불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빠지면 마음에 흐려집니다. 믿음도 식어지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 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해 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1: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Be alert at all times, praying that you may have the strength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will take place,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둔함의 반대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보초가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즐기고 있는 상태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무엇보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 하나님과 기도로서 무전기 연락을 취하고 있어야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또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깨어 있음에 대한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종들에게 각가 사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세의 징조가 가득하고, 세상이 혼란해도 성도는 끝까지 깨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 그 날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며칠전 하버드대학 상담학 교수인 한인 1.5 세 조세핀 김 교수의 간증을 인터넷에서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세핀은 아무 것도 잘 몰랐을 때 갓 20 살에 처음 상담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세핀 김이 처음 만난 아이는 13 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여자 아이였는데. 덩치도 크고 화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가끔 폭력적으로 변해 조세핀 교수를 때리기 까지 했습니다./그렇게 하기를 석달째가 조세핀은 그 날도 또 아이에게 가서, “ 내가 여기 있으니까 혹시 네가 원하면 나를 찾아 오렴” 말을 하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갑자기 사무실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의 Life story 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7-8 명의 어른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10 살때 임신한 걸 알고 혼자서 유산을 한 아이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일어나기는 싫고 일하기 싫으나 먹긴 먹어야 하고 집은 있어야 하니까,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자꾸 딸을 판것입니다./ 조세핀은 이 아이 손을 잡으면서, “ 이래서 네가 그렇게 화가 많았구나.. 살아 있는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핀은 그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 석달 동안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찾아와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니? 그러자 그 소녀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매번 다시 왔어요./ 소녀가 어떻게 행동하던 매번 찾아간 조세핀에게 이 소녀는 마음을 연것입니다.

조세핀은 이 아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God always came back!!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다시 찾아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은 He always comes back.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2 천년전 아기 예수로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깨어 사명을 감당하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우리를 늘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끊임없는 찾아오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 천년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육신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맞이할 준비로 깨어 기도하며, 깨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마켓스퀘어 한인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기도) 우리 인생을 늘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에 넘어져도 찾아와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먹고 사는 일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을 얻게 하시고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을 돌보며 살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깨어 있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점점 커지고 분명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오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속한 가정과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육신이 연약한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와 위로주시며,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질병조차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 저희와 사업과 직장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 직장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표기도)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대강절 첫주일 주님앞에 예배나오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영광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를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특별히 육신의 치유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소서. 불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독 대한 민국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북한의독재정권을 무너뜨려주시옵소서. 북한 땅의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점점
커져가도록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공동체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예수님 처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Bistro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 한인교우들이 자원봉사하는데, 그 마음과 손길을 통해 영광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도 나날이 양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선포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